

보도일시 (인터넷) 배포 즉시 (지면) 배포 즉시      배포 2026.6.15.(월)

## 동해해수청, 동해항 해양수리현상 조사용역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환동해권 물류 거점 항만 확충을 위한 “동해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방위적 동해항의 해양환경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코자, 이번달부터 ‘동해항 해양수리현상 조사용역’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용역은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29년 6월까지 약 36개월 시행될 예정이며, 동해항 주변 해양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경 변화로 인한 동해항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장기적 항만 운용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동해항 개발사업은 북방 물류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철저한 해양수리현상 조사를 통해 해양 변화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동해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책임자	과 장	김연수 (033-520-6251)
		담당자	주무관	권용명 (033-520-6252)
		담당	주무관	배동성 (033-520-6253)